

Q: 이 불경기에 어떻게 대기업 취업했나요?

## A: 목표 기업에 맞춰 나를 개조했죠

“영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노력을 택했고, 한 회사를 목표로 미칠 듯이 뛰었습니다.” 10명 중 고작 1명 정도만이 직장을 구하는 취업 환파를 이기고 졸업과 동시에 원하는 직장을 얻은 졸업생들의 표정은 기쁨을 넘어 미래에 대한 기대와 자신감에 차 있었다.

졸업 전인 지난 1월 대우건설에 취업한 김태훈(29·전남대 건축공학과)씨와 삼성화재에서 신입사원 교육을 받고 있는 박은숙(26·조선대 법학과 졸업)씨를 만났다. 이들은 대학과 전공은 물론 원하는 직장

아파트를 비교하기 위해 대부분의 모델하우스를 살펴보았다. 이 때문에 면접시 대우 아파트의 장단점을 설명하라는 주문은 그에게 합격을 알리는 신호나 마찬가지였다.

또 기술 위주의 사고에 매몰되기 쉬운 이 공계생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3년 동안 경제지를 매일 읽었으며, 회화 위주의 영어 공부도 쉬지 않았다. 2007년 쓰나미발생 때에는 필리핀에서 자원봉사도 했다.

지난 24일 졸업한 박은숙씨는 2학년까지는 경찰공무원 시험 준비를 했다. 그러나 경찰이 자신의 적성과 맞지 않다고 판단, 일단



대학 졸업 전 취업에 성공한 김태훈(왼쪽)씨와 박은숙씨(오른쪽)씨가 자신의 취업 준비 과정, 미래의 직장생활을 이야기하고 있다.

### ●대우건설 김태훈씨

회사 인재상 철저 분석  
해외 건설현장 둘러봐

이 확연히 달랐지만 취업 준비 과정과 내용은 함께 스테디를 한듯 흡사했다. 자신의 성격과 이상에 맞는 기업을 취업대상으로 정해놓고, 그 기업이 추구하는 회사 가치 및 인재상에 맞춰 학습과 사회 경험 쌓기를 병행한 것이다.

26일 졸업하는 김태훈씨는 대학 2학년 때 자신이 평생 몸담을 회사로 대우건설을 택했다. 당시 대우건설이 국내 건설사 신용평가 1위였으며, 특히 해외 진출사업에 역량을 집중시키는 점이 주목했다.

이후 대우건설에 대해 철저한 분석에 들어갔다. 회사 핵심가치가 '도전과 열정, 자율과 책임'이라는 점과 기업문화, 인재상 등을 파악한 뒤 입사 계획을 세웠다.

우선 방학때마다 대우건설이 진출해 사업을 벌이고 있는 아시아지역 7개국을 배낭여행으로 둘러봤으며, 대우 아파트와 타사의

### ●삼성화재 박은숙씨

각종 공모전 참가 수상  
봉사활동 등 경험 쌓기

휴학을 했다. 이후 2년 동안 자신이 해보고 싶은 공부와 각종 아르바이트, 심지어 러시아 지역 고려인 대상 봉사활동 등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

3학년 복학과 동시에 전공과 생소한 삼성화재를 목표로 삼았다. 남보다 늦게 경제 관련 공부를 하면서도 각종 대학 활동과 공모전에 참여했다. 강의용 책상에 책받침대를 붙여 학습 공간을 넓힌 다용도 책상으로 전국대학생발명대회에서 장려상을 받았다.

“오늘 이 자리를 위해 한가지 가지고 온 것이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약관인 그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청약을 하겠으니 거침없는 서명으로 승낙을 해주십시오.”

박씨가 면접 후 인사와 함께 면접관들을 향해 건넨 마지막 말이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 한전 혁신도시 이전 잉거주춤

부지 매입 불투명·6개 자회사 재통합 추진... '구실' 마련 논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 본사의 나주혁신도시 이전에 대한 국회의원 설문조사(본보 25일자 3면 보도)와 관련, '이전 백지화를 위한 여론조성용'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한전 측은 본사 사옥 부지 매입에 대한 불투명한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더욱이 한전 내부에서 지난 2001년 한국수력원자력·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 6개로 분할한 자회사를 다시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 '본사 이전 백지화'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한전 측 관계자는 25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민주당 김재균(광주 북을) 의원이 “(나주혁신도시로 이전할) 한전 본사 사옥 부지 매입을 언제 하느냐”라고 질문하자 “상반기 경영 호전 상황을 보고 하반기부터 매입 절차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 같은 한전의 입장은 경

영 상태를 빙미로 또다시 한전 본사 이전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어 정치권과 지역민의 반발을 사고 있다. 애초 한전은 지난해 1·4분기에 부지를 매입하고 3·4분기에 건설에 들어갈 계획이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한전이 '분할 발전회사의 한전으로의 재통합' 방안을 주 내용으로 하는 '향후 전력산업 발전방향' 내부 보고서를 마련한 것으로 드러나 본사 이전 작업을 흐트러뜨리기 위한 '연막 작전'이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에게 제출한 이 보고서는 “현 발전자회사 분리 체제는 원자력 발전 비중 확대를 위한 입지 확보와 대규모 투자비 조달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제1안으로 발전, 계통운영 등을 통합해 일관사업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지식경제위원회 회의가 끝난 후 김성수 한전 사장은 김재균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하반기에 (본사 사옥) 부지를 매입하겠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알림

## 행정체제 개편 대안 찾는다

3월 4일 광주서 릴레이 토론회

지역주민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체제 개편 문제는 최근 행정안전부가 ‘지방행정체제 개편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나서면서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광주일보사는 전국 9개 지역 대표 일간지와 함께 참여하고 있는 한국지방신문협회, 희망제작

소와 공동으로 오는 3월 4일 ‘지방행정체제 개편’ 릴레이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광주일보사가 주관하는 이날 토론회는 지난 1월22일 제주(제주일보), 2월5일 전주(전북일보), 12일 춘천(강원일보), 20일 수원(경인일보) 토론회에 이어 다섯번째입니다.

■대주제: 행정체제 개편 논란,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대안을 찾다

●사회: 박해자 호남대 인문사회대학장  
●발제: 정순관 순천대 법정책부 교수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쟁점과 과제) 우윤근 민주당 국회의원 (바람직한 행정체제 개편과 광주·전남의 변화)

●토론: 강인호 조선대 행정학과 교수  
복문수 전남대 행정학과 교수  
서정훈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  
양승주 목포대 행정학과 교수  
조호권 광주광역시의회 부의장  
김동현 전라남도 행정지원국장

■일시: 2009년 3월 4일(수) 오후 2시  
■장소: 광주광역시의회 5층 소회의실  
■주최: 한국지방신문협회·희망제작소  
■주관: 광주일보사  
■후원: 광주광역시·광주광역시의회·전라남도의회·광주전남지역 혁신협의회

光州日報社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 30대 그룹 대졸 초임 최고 28% 삭감

30대 그룹이 대졸 신입사원의 연봉을 최고 28%까지 차등 삭감하고 기존 직원도 향후 수 년간 임금을 동결해 고용 안정과 신규 및 인턴 채용에 활용기로 했다.

30대 그룹 채용 담당 임원들은 25

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고용 안정을 위한 경제계 대책 회의’를 통해 일 자리 나누기(잡세어링) 차원에서 이 같이 합의했다고 정병철 전경련 부회장이 밝혔다.

전경련은 대졸 초임이 2천600만원

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실정을 고려해 이를 시행하고, 2천600만원 이하인 기업도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삼성그룹은 대졸 신입사원의 연봉을 10~15% 정도 삭감하기로 했다. LG그룹도 5~15% 줄인다.

/최재호기자 lion@연합뉴스

## 이것이 5만원 신권

한국은행은 25일 신사임당 초상이 들어간 5만 원권 도안을 일반에 공개했다. (사진) 이 고액권 지폐는 오는 6월 발행될 시중에 유통될 예정이다. 이 도안은 2007년 12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확정됐다.

앞면에는 신사임당 초상과 함께 신사임당의 작품으로 전해지는 ‘목포도도’와 ‘초충도수병(보물 595호)’ 가운데 가지 그림이 삽입됐다. 뒷면의 보조 소재는 조선 중기의 화가인 어몽룡의 ‘월매도’와 이경의 ‘풍죽도’를 사 용해 세로로 디자인했다.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대회  
2009년 3월 1일(일) 오전 8:00  
본수출도(경남)를 할 예정인 팀들 (경남-남부교)